

건강한 노동자문화 창조를 위해

전노협 문화부장 김정란 씨



87년 이후 노동자문화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80년대 초반 민중문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7~8년을 경과하면서 노동자 주체의 문화운동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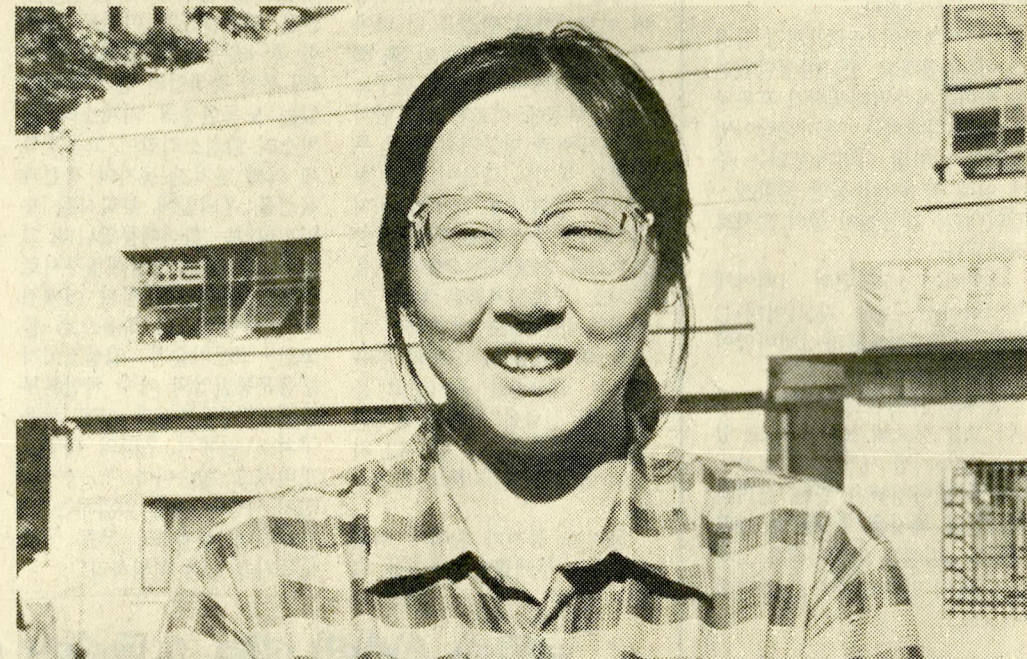
그러나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문화전문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자 주체의 문화운동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 문화활동가들은 '노동자 문화는 건강하고, 노동자는 건강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당위를 내세우며 긴 동면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의 잠재된 문화역량을 일깨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희예술 분야에서 꽤 유명한 전문활동가였던 김정란(34)씨도 노동자문화운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중 하나다.

"87년 이후 노동자문화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노조라는 합법적인 진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나 소규모 문화공간에서 문화씨클 정도의 활동밖에 할 수 없었으나 노조가 만 들어지고 파업을 겪으면서 노동자 문화를 건설할 토대가 넓혀진 거죠."

전문 문화활동가로서 노동자 문화운동을 중시해 왔던 그는 87년 이후 넓혀진 공간속으로 뛰어 들기 위해 전노협 문화부에서 1년 남짓 활동하다 현재 전노협



문화부장직을 맡고 있다. 기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전노협 문화부에서 활동할 사람으로 그가 적격이라고 입을 모으게 된 것은 '문화운동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그의 풍부한 문화활동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76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해 미술이 아닌 연극에 빠져들었다. 어렸을 적부터 춤을 잘 췌던 점도 있었지만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이 체질에 잘 맞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며,

그리고 좁은(?) 학교를 박차고 극단 한두레에 가입해 78년 창작탈춤 <공장의 불빛>에 출연해 마당극의 건강함을 전파하는 한편

청계피복과 콘트롤 데이터 등 당시 몇 안되는 민주노조에 탈춤반을 꾸리는 사업을 벌였다.

또한 탈춤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 뛰어다니며 몸에 익혔고, 81년에는 무용강습소를 열어 민족연희에 대한 강습활동도 벌

였다.

이후 무용 연극 탈춤 등 연희예술의 모든 분야의 공연에 거의 참여하고 내림굿을 전수받기도 했다.

그 무렵 그의 명성은 대단해, 문화운동판에서 '작두날 위에 서

서 춤춘 유명한 배우'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문화운동이 사회운동의 중요 역량이던 시기였으니 그의 유명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노동자 문화활동가 민주노조를 강화하고 세우는 데 중심점이 두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한 노동자문화를 창조하는데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집단과 노동자문화패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는 '방향과 과제는 객관화돼 있다'는 상호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전태일 20주년 기념 노동예술제를 민예총과 공동으로 열어 전문가 역량은 전문가 역대로, 또 노동자 문화운동은 그 나름대로 사업을 펼쳐 보일 계획이다. 즉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기간'에 전문가와 노동자 문화가 행사를 펼쳐 보인다는 것.

"어쨌든 노동자문화운동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자문화운동은 현단계에선 투쟁으로 지켜지고 발전된다는 관점에 서지 않는 한 앞으로 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특히 노조내 문화패의 경우 여전히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건강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지배문화의 지배력도 놀랄 정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노동자문화운동도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대영 기자>